

전통적 촌락지역의 지역정체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홍성군 결성면을 사례로

최원희*

The Preliminary Study on Regional Identity of Traditional Rural Areas: A Case Study of Gyeolseong-myeon, Hongseong-gun, Korea

Wonhoe Choi*

요약 : 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인본주의에 기반한 신지역지리학 연구의 일환으로 등장한 지역정체성 형성 이론 중 제도화 이론에 주로 기반하여 홍성군 결성면을 대상으로 '전통적 촌락지역의 지역정체성'을 파악했는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의 측면에서 결성면의 시대별 지역정체성은 고대-근대 시기의 경우 '내포지역 천수만 중심부의 해양-내륙 간 적환지에 입지한 농업 발달지'로, 백제·신라·고려시대의 경우 '교통, 농업, 군사, 행정 등의 요충으로서의 성곽 중심지'로, 조선시대의 경우 '군현 수준의 지방행정 중심지'로, 일제강점기의 경우 '면단위로 격화된 농촌지역 및 독립운동 성지'로, 그리고 해방 이후의 경우 '퇴락한 저개발 상태의 순수농촌지역'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둘째, 최근 상징적 형상 측면에서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은 결성면의 심볼마크, 면새·면꽃·면나무, 결성면의 노래, 결성초등학교 교가 등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징들에 나타나는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은 역사, 지리, 문화, 이상 등에 관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셋째, 일제 강점기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결성면사무소와 결성초등학교가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을 형성해 온 제도적 주체 역할을 했고, 선사시대부터 최근까지의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이 압축된 기록으로서의 결성면지들이 언론기관, 학술단체 등과 같은 지역정체성 형성의 주체 역할을 대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넷째, 최근 홍주역사 천년을 맞이하여 홍성군의 시민단체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홍주지명되찾기운동으로 인해 결성면의 지역정체성 중 관념 차원의 영역적 형상으로 잔존해 있는 전근대적 군현시대의 역사적 고토의식마저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요어 : 전통적 촌락지역, 결성면, 지역정체성, 제도화

Abstract :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study was based upon the institutionalization theory on formation of regional identities, and institutionalization theory was based upon the new regional geography toward humanism since 1970s. According to this theoretical background in this study, regional identity of traditional rural areas was analyzed in a case study of Gyeolseong-myeon, Hongseong-gu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regional identities per period of Gyeolseong-myeon in terms of territorial shape and symbolic shape were arranged as agricultural development region adding a sea-land transshipment location in the case of period between ancient times and modern times, as castle-type central place in the case of Baekjae Dynasty era, Silla Dynasty era and Korea Dynasty era, regional administrative center in the case of Choson Dynasty era, rural region being degrading to myeon-level administration district and sacred place of independent movement in the case of Japanese Colonial era, and less developed and pure agricultural region in the case of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cwh@kongju.ac.kr)

era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y. Secondly, the regional identities of Gyeolseong-myeon in terms of symbolic shapes such as symbol mark, bird, flower, tree, and song were appeared as the composites of history, geography, culture, ideal and others. Thirdly, Gyeolseong-myeon Office and Gyeolseong Elementary School were regarded as the institutional subjects having formed the regional identities of Gyeolseong-myeon from era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y to recent date, and the regional geography books of Gyeolseong-myeon as the compressed archival data in the period from ancient times to recent times were appeared as taking the place of roles of subjects like mass media and academic body in formation of regional identity. Fourthly, recently, Even the historical old territory consciousness of pre-modern times existing as the territorial shape in ideological dimension was regarded as verging upon extinctive crisis because of so-called 'restoration movement of Hongju, old place name of Hongseong' being developed in dimension of Hongseong-gun region for Hongju's thousandth anniversary.

Key Words : Traditional rural areas, Gyeolseong-myeon, Regional identity, Institutionalization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대상지역,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1970년대 이후 지리학에 인본주의에 기반한 신지역지리학이 등장하면서 지리학의 본질이자 연구대상인 지역은 인간의 주관성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새로운 지역 구성과 관련하여 새로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지역정체성(地域正體性)에 관한 이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정체성 형성에 관한 이론들 중 가장 정교한 것이 제도화이론(制度化理論)이다.

지역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국외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Knight(1982), Raagmaa(2002), Paasi(2003)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고,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심승희(1995), 이영민(1999), 임병조(2009) 등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국내에서의 지역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길지 않은 기간과 적은 연구 편수에도 불구하고 이론 및 사례 연구 모두에서 적지 않은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는 국외 연구에 비해서 10여년 이상 늦게 시작된데다가 연구 편수 자체가 8편 정도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지역사례연구는 절반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사례연구들은 대부분 국내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연구의 대상지역,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그간 우리나라 지역정체성 연구에서 사례 연구 지역으로 선정된 적이 없는 촌락지역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는데, 촌락지역 중에서도 한편으로는 지역중심도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전형적 순수농업지역 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발전 상태에 있는 촌락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을 '전통적 촌락지역'으로 지칭했다.

본 연구에서 지역정체성 연구의 사례지역으로 촌락지역을 선택한 것은, "촌락은 동질성의 정도와 주로 연계된 하나의 개념적 및 실제적 공간"(Cresswell, 2013:184) 이어서, 지역정체성이 도시지역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특히 역사성이 도시지역과 달리 지역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전통적 촌락지역의 전형적 사례로 선택한 곳이 충청남도 홍성군(洪城郡) 결성면(結城面)인데, 이곳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면지역과 같이 공간적 형태에 있어서 중심지로서의 상업적 가촌과 그의 배후지역으로서의 농촌지역으로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결성면의 자연지리적 및 인문지리적 특성은 서론부의 끝 부분에 개관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통적 촌락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정체성 형성 이론 중 가장 일반적인 제도화이론을 주로 적용하여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의 주요 구성요소의 영역적 형상 및 상징적 형상을 조사분석하고, 이어

서 지역정체성 형성의 제도적 주체, 즉 행정기관, 교육기관, 언론매체, 사회단체 등과 같은 제도화의 주체를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본 연구는 지역정체성의 주요 구성요소로서의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의 시대별 역사경관을 통해서 분석했고, 역사에서 드러난 지역정체성이 지리적 및 문화적 특성과 결합하여 최근의 지역정체성 형성의 기반이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결성면의 지역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최근의 변화를 조사했다. 본 연구를 위해서 결성면의 지리, 역사, 문화 등에 관한 현지답사와 문헌조사가 이루어졌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지역정체성에 관한 사례연구의 성과가 더 축적되어야 하고, 특히 촌락지역을 사례로 연구한 경우는 본 연구가 처음이어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목적이 부분적으로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본 연구의 성과가 부분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할 수도 있어서, 본 연구의 수준을 시론적 연구(試論的研究)로 한정했다.

2) 연구대상지역의 지리적 특성

(1) 결성면의 자연지리적 특성

결성면은 홍성군의 한 면으로서 동쪽으로는 구항면 남산·장양리 및 은하면의 금곡·학산·목현·덕실리와, 서쪽으로는 서부면의 중·판교리와, 남쪽으로는 모산만(茅山灣)을 사이에 두고 보령시 천북면과, 북쪽으로는 갈산면 오두·와·행산·쌍천리와 각각 접하고 있다. 결성면의 수리적 위치를 보면, 극동은 $126^{\circ}35'08''$, 극서는 $126^{\circ}30'54''$, 극남은 $36^{\circ}29'47''$, 극북은 $36^{\circ}35'22''$ 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홍성군, 2009).

결성면은 동부와 서부에 대상(帶狀)의 산지가 남북방향으로 발달해 있고, 남부에도 산지가 발달해 있는데, 동부의 청룡산(靑龍山, 236.0m), 서부의 형산(衡山, 209.6m), 남부의 왕자산(王子山, 106.2m), 석당산(石堂山, 146.4m) 등이 그것들이다. 남부와 북부에는 각각 하천이 흐르면서 비교적 넓은 범람원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있는데 북부의 와룡천(臥龍川)과 남부의 금리천(琴里川)이 그것들이다. 범람원 충적평야는 면의 중남부의 곡간충적지에도 금곡천(琴谷川)을 중심으로 비교적 대규모로 발달되어 있다(국토지리정보원, 2013). 결성면은 천수만에 연해있어서 해풍의 영향을 수시로 받으며, 연강수량은

인접한 서부면이나 구항면 보다는 적은 편이고, 연평균 기온은 군의 홍북면, 금마면, 홍동면 보다는 낮은 편이다(홍성군청 홈페이지).

(2) 결성면의 인문지리적 특성

결성면은 고대로부터 전근대까지는 중부 서해안의 천수만(淺水灣) 일대의 해운교통과 충청내륙 일대의 육상교통을 연결하는 수륙의 적환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일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결성면 일대에 고대에는 진번국(眞蕃國)과 고비리국(古卑離國)이 있었고, 백제시대에는 결기(結己)·결이(結己), 신라시대에는 결성(潔城), 고려시대에는 결성(結城) 등의 지명이 유지되었다(결성면지편찬위원회, 1994:11). 결성면 일대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결성현(結城縣)의 읍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내면(縣內面)이라 불리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문헌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내면은 결성현의 관아로부터 북쪽으로 5리 지점에 위치하였다. 「1872년 지방지도」에서는 결성현의 동문으로부터 동북방향이 현내면으로 기록되었다. 1895년(고종 32년)에 결성현이 결성군으로 변경되었다(국토지리정보원, 2012:609).

그러나,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걸쳐서 우리나라 교통체계에서 해운이 쇠퇴하고, 교통체계가 도로·철도교통 위주로 변경되고,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 각종 국도·지방도가 홍성읍, 광천읍 일대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급기야 1914년에 결성군(結城郡)이 홍주군(洪州郡)에 통폐합되면서 결성군은 홍성군(洪城郡)의 1개면인 용천면(龍川面)으로 전락되었다가 1917년 결성면으로의 면명개칭(面名改稱)을 거쳐(국토지리정보원, 2012:609), 이후 홍성군 서부지역의 평범한 농촌지역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홍성군의 2읍 9면중의 하나인 결성면은 읍내리, 성호리, 성남리, 금곡리, 성곡리, 무량리, 교항리, 용호리, 형산리 등의 9개 법정리와 읍내리의 좌우촌·교촌, 성호리의 후청동·가곡·원성호, 성남리의 내남·중리·신리, 금곡리의 해동·원천·원금곡, 성곡리의 원성곡·박철, 무량리의 원무량·역촌, 교항리의 자은동·서지동·원교항·용동, 용호리의 덕우·두지동·평산, 형산리의 원형산·구수동·주교 등 25개 행정리를 각각 관할하고 있다(홍성군청 홈페이지).

결성면의 인구는 2016년 6월 말 현재 2,295명인데, 이는 홍성군 전체인구 97,687명의 2.34%에 불과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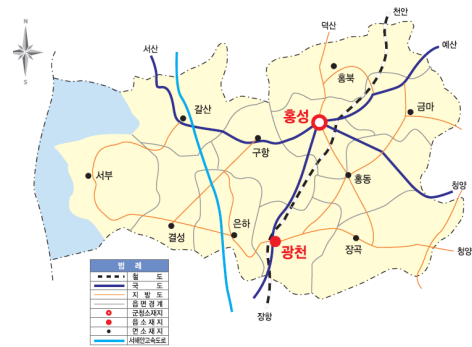


그림 1. 홍성군에서 결성면의 위치

출처 : 홍성군청 홈페이지(<http://www.hongseon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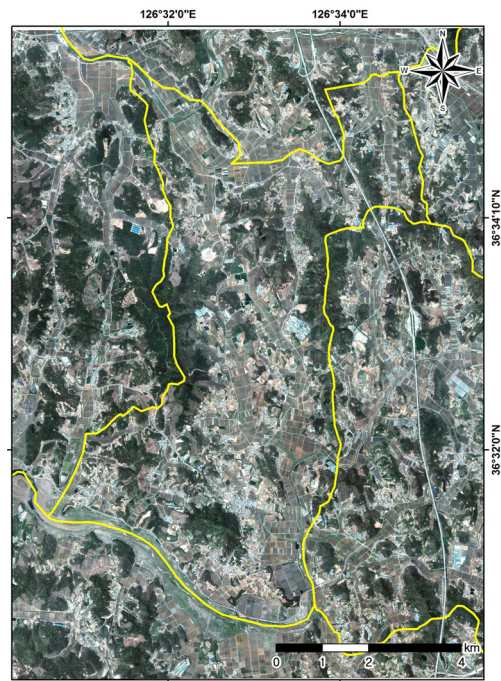


그림 2. 결성면의 영역

출처 : (좌) 홍성군, 2009, (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ari.re.kr>).

결성면의 인구는 홍성군의 11개 읍면 중 인구순위로도 최하위인 11위에 해당된다(홍성군청 홈페이지).

결성면은 홍성군의 서부에 위치해 있고, 장항선 철도의 요역인 홍성역이 입지해 있으면서 홍성군청 소재지인 홍성읍과는 약 16km, 장항선의 요역인 광천역이 설치되어 있는 광천읍과는 약 9km 정도 각각 떨어져 있다(홍성군청 홈페이지).

최근 들어 서해안고속국도가 결성면의 북동부 형산리 일대를 북서-남동 방향으로 지나면서 홍성 IC가 결성면의 북동부에 근접해 있고, 96번 지방도가 결성면의 동쪽에 있는 홍성군의 2위 중심지인 광천읍으로 연결되고, 2번, 7번, 8번, 11번, 12번, 13번, 17번, 18번과 같은 군도들이 면의 곳곳을 연결하고 있어서(국토지리정보원, 2013; 홍성군, 2009) 결성면의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홍성군내에서의 결성면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II. 지역정체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지역정체성의 연구동향

1) 국외 지리학 분야에서 지역정체성의 연구동향

국외의 지리학 분야에서 지역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Knight(1982), Sayer(1989), Scott(2001), Forsberg(2002), Raagmaa(2002), Paasi(1986; 1991; 2003)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정체성 논의의 배경으로서 현상학, 후기 구조주의, 구조화이론, 신지역지리학, 인본주의지리학, 포스트모더니즘, 세계화 등에 관한 내용들과 지역정체성의 의미와 성격, 형성 과정 및 주체 등에 관한 내용들¹⁾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 국내 지리학 분야에서 지역정체성의 연구동향

(1) 국내 지리학 분야에서 지역정체성 연구의 개관

국내에서도 그간 국외 지리학에서 지역정체성에 관한 연구성과에 기반하여 지역정체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심승희(1995), 이영민(1999), 홍성흡(2001), 최재현(2005), 임병조·류제현(2007), 임병조(2009), 조아라(2009), 박승규(2013)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 이영민(1999), 최재현(2005), 임병조·류제현(2007), 박승규(2013)의 연구는 지역정체성의 이론 및 방법론에 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심승희(1995), 홍성흡(2001), 임병조(2009), 조아라(2009)의 연구는 지역정체성의 사례에 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 이러한 연구들에 관해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영민(1999)의 연구

이영민(1999)은 지역정체성 연구에 지역신문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영민(1999)은 한국의 지역사회는 근대화 및 세계화 시대를 거치면서 중앙에의 종속성 심화와 세계화본에의 식민화 가능성 증대라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생활공간에 있어서의 대응전략이

요망되며, 그러한 전략개발의 바탕이 되는 것이 지역정체성의 확립이라고 간주하고, 지역정체성의 확인과 형성 메커니즘 분석에 귀중한 자료가 지역신문이라고 제안하였다.

② 최재현(2005)의 연구

최재현(2005)은 세계화에 따라 재등장하는 지역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등장배경과 새로운 지역개념 정의, 지역정체성의 의미와 성격 등을 살펴봄으로써 장소마케팅을 통한 지역개발전략에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최재현(2005)은 지역개념과 관련하여 전통적 지역개념이 경제설정에 바탕을 둔 지역화에 따른 명확한 지역개념을 바탕으로 한 폐쇄적 개념이라면, 세계화와 함께 등장한 지역개념에서는 개방성이 강조되고, 지방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과의 관계설정이 중요시 되며,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개념으로 공간스케일, 네트워크, 장소, 공간개념 등을 제시했다. 지역정체성 개념과 관련하여 지역정체성의 의미를 인본주의적 시각, 후기구조주의적 시각, 제도조직적 시각에서 논의하였으며, 지역정체성의 성격을 유동성과 창조성, 관광활동과 연결된 장소판촉과의 관련성, 문화경제성, 다층성과 다원성의 측면에서 논의했다.

③ 임병조·류제현(2007)의 연구

임병조·류제현(2007)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적합한 지역개념으로 동일성(identity) 개념을 제시하였다. 임병조·류제현(2007)은 지역 동일성은 포스트모던 시대 지역의 주요 속성, 즉 다양성, 주관성, 역동성, 가변성을 탐구하고 설명하기에 적절한 개념으로, 지역동일성의 구축은 영역적 경계, 상징, 제도 등을 만들어 내는 과정, 즉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과정을 필요로 하며, 지역동일성은 외부세계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관념이며, 주민을 비롯하여 행정기관, 학술단체, 언론, 교육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적 요소들이 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요소들의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제도화 개념은 지역동일성의 구성과정을 분석하는 하나의 유효한 수단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④ 박승규(2013)의 연구

박승규(2013)는 지역정체성이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노두이며, 지역정체성은 지금도 변화하고 있

는 현재형이고 진행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승규(2013)는 지역정체성이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기 위해, 공간의 차이를 만드는 인간, 정체성의 기원,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야기, 변화하는 정체성과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으로의 변이, 동일성과 차이의 반복을 거듭하는 정체성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⑤ 심승희(1995)의 연구

심승희(1995)는 전주시 한옥보존지구와 역사유적을 사례로 전통도시로서의 지역정체성이 역사경관을 통해 어떻게 표출되는지 분석하였다. 심승희(1995)는 역사경관을 현대의 도시경관 속에서 사회적 선택에 의해 남아 있게 된 보존대상으로서, 역사경관은 지역의 현대적 모습을 반영하며, 곧 현재의 경관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심승희(1995:69)는 지역정체성 형성의 매개물이자 결과로서 도시 내에 존재하는 역사경관은 그 자체의 여러 가지 장소적 성격과 변화하는 지역의 현대적 상황과 가치기준에 따라 재생, 생성, 소멸하기도 하는 역동성을 가지면서 현재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⑥ 홍성흡(2001)의 연구

홍성흡(2001)은 일본 구주(九州) 탕포원정(湯布院町)을 대상으로 지역정체성이 형성되고 분화되는 양상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운동을 이끌어온 선도집단의 운동전략과 활동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홍성흡(2001)은 지역정체성은 외부적으로는 차이성을 확대하고, 내부적으로는 동질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지역사회의 독특한 역사·사회·문화·경제·물리환경적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적·상징적 의미를 지역주민들이 내재화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재구성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⑦ 임병조(2009)의 연구

임병조(2009)는 '지역정체성의 구성과 제도화'에 관해 "홍성신문에 투영된 '내포' 만들기"를 사례로 연구했다. 임병조(2009)는 지역정체성은 제도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며, 지역신문은 제도화 과정에 작용하는 가장 대표적 요소인데, 내포에선 제도화 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이 군단위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지역의 구성으로 나아가지는 못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⑧ 조아라(2009)의 연구

조아라(2009)는 일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방도시가 관광을 통해 새롭게 창조됨을 밝히고, 지역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문화관광지의 지역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프로세스를 밝히고 있다. 조아라(2009)는 문화관광지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개념들을 재해석, 제도화, 재인식 단계로 제안하고, 오타루의 문화보존운동과 역사관광지화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문화관광지의 사회적 구성 단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시도하고, 지역정체성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는 주된 메커니즘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했다. 조아라(2009)는 오타루에서 역사경관보존운동으로서의 문화보존운동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이 성장하면서 오타루가 문화관광지로 급부상했음을 밝히고 있다.

⑨ 국내 지리학 분야에서 지역정체성 연구의 특성

이상에서 국내 지리학에서 지역정체성 연구에 관해 개관했는데, 이를 보다 압축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정체성의 이론 및 방법론에 관한 연구에서 이영민(1999)은 근대화 및 세계화 과정의 일상생활과 생활공간에서 지역정체성 확립의 메커니즘 분석에 지역신문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고, 최재현(2005)은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지역개념에 의거한 지역정체성의 의미를 장소마케팅을 통한 지역개발전략의 이론적 배경에 적용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임병조·류제현(2007)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지역탐구, 설명개념으로서의 지역동일성은 영역적 경계, 상징, 제도 등을 만드는 제도화 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박승규(2013)는 정체성을 현재진행형 상태로 규정하고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를 토대로 한 정체성과 공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국내 지리학의 지역정체성의 사례 연구에서 심승희(1995)는 전주시 한옥보존지구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역정체성의 상징물로서의 역사경관의 역동성을 확인하고 있고, 홍성흡(2001)은 일본 탕포원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역정체성의 형성과정을 지역정치로 개념화하고 지역정체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병조(2009)는 홍성신문에 투영된 내포 만

표 1. 홍성신문에 게재된 상징적 형상의 내용

상징적 형상	민속문화	관방유적	유교문화·충절	항일운동 관련	종교 관련	기타
내용	한성준 민속무용 결성농요	홍주성	노은서원 최영 성삼문	한용운생가 김좌진생가 항일의병유적	불교유적 천주교유적 동학관련유적	지역축제 서민문화 영역이데올로기

출처 : 임병조, 2009:97.

들기를 사례로 지역정체성의 제도화과정을 연구한 결과,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이 지역 구성 차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조아라(2009)는 일본 오타루를 사례로 지역이 정체성의 정치를 통해 새롭게 재해석되고, 경제적 동기로 인해 그 의미가 수정되고 타협되어 제도화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국내의 지리학에서 지역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세계화 추세의 인본주의·포스트모던 시대에 후기구조주의, 구조화이론 등에 적합한 신지역지리학 차원의 지역개념 정립의 한 방법으로서 지역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제도화 과정으로 파악하고, 지역정체성이 지역의 구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역정체성의 제도화 과정에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이 핵심적 요소가 되며, 상징적 형상의 주요 내용은 역사·전통임을 밝히고 있다.

(2) 국내 지리학 분야에서 지역정체성 사례연구 중 역사경관 사례연구

지역정체성에 관한 사례연구들 중 역사경관을 사례로 한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면, 심승희(1995)와 조아라(2009)는 사례연구에서 역사경관을 매개로 지역정체성을 찾고 있다.

즉, 심승희(1995)는 전주시 한옥보존지구와 역사유적을 사례로 전통도시로서의 지역정체성이 역사경관을 통해 어떻게 표출되는지 분석한 결과, 역사경관은 현대의 도시경관 속에서 사회적 선택에 의해 남아 있게 된 보존대상으로서, 역사경관은 지역의 현재적 모습을 반영하며, 곧 현재의 경관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조아라(2009)는 일본 오타루의 문화보존운동을 통한 역사관광지화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문화관광지의 사회적 구성단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시도했다.

또한, 지역정체성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지역정체성에 관한 개념, 의미, 성격의 설명 과정에서 역사를 지역정체성의 주요 구성요소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데, 예

를 들면, 이영민(1999:1)의 ‘역사문화경관’, 심승희(1995: 43-53)의 ‘역사경관’, 홍성흡(2001:56)의 ‘역사적요소’, 최재현(2005:11-14)의 ‘역사, 역사성, 역사정체성(역사적 사실, 인물, 역사현상, 유적) 및 과거경관’, 임병조(2009:97)의 ‘역사·전통’(민속문화, 관방유적, 유교문화·충절, 항일운동 관련, 종교 관련 및 기타), 조아라(2009:240)의 ‘역사경관’(역사경관 보존운동, 역사관광지화) 등이 그것들이다.

(3) 국내 지리학 분야 지역정체성 연구에서 상징적 형상 또는 상징의 분류

임병조(2009:97)는 지역정체성의 구성요소를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으로 분류하면서 상징적 형상을 ‘역사와 전통’으로 규정하고, 그의 세부적 구성요소로 민속문화, 관방유적, 유교문화·충절, 항일운동 관련, 종교 관련, 기타 등으로 제시하면서 홍성군의 홍성신문에 게재된 상징적 형상의 내용을 표 1과 같이 추출하고 있다.

임병조(2009:97)가 표에서 제시한 상징적 형상으로 제시한 내용은 주로 역사와 전통에 관한 것이지만, 넓게 보면 역사(민속, 관방, 유교, 항일, 종교 관련 유적 및 인물), 지리(영역이데올로기), 문화(지역축제, 서민문화) 등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김일곤 등(1998:356-359)은 임병조(2009:97)가 사용한 용어 ‘상징적 형상’ 대신 ‘상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상세히 분류하고 있다. 김일곤 등(1998:356-359)은 지역의 상징노래나 상징물(상징새, 상징나무, 상징꽃) 속에서 그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일차적 자연 환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이차적 문화공간환경을 밝힐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상징을 형성주체에 따라 자연적 상징과 인위적 상징, 존재양식에 따라 물리적 상징과 추상적 상징, 생성과정에 따라 자연적 상징, 제도적 상징, 개인적 상징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상징의 존재를 언어, 행위, 상상의 산물, 관념, 인물, 사물, 사건, 제도, 지역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²⁾

(4) 국내 지리학 분야 지역정체성 연구에서 지역정체성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연구

지역정체성의 형성을 통해서 또는 형성된 지역정체성을 통해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홍성흡(2001), 최재현(2005) 및 조아라(2009)의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홍성흡(2001:56)은 일본 여러 지역의 지역활성화 운동 주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정체성 확립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지역정치로 개념화하고, 최재현(2005:13)은 지역정체성은 문화와 경제로 나누는 이분법적 분석에서 상징자본의 중요성을 지적하거나 장소성에 바탕을 둔 지역계획 등을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고, 특히, 전통문화와 지역 이미지를 통한 지역정체성은 관광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조아라(2009:240-246)는 일본 오타루의 경우 운하보존운동을 통해서 문화관광지화 하는 과정에서 지역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방도시가 관광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는 과정에서 지역정체성은 경제적 동기로 인해 그 의미가 수정되고 타협된다고 밝히고 있다.

2. 지역정체성의 일반적 의미 및 성격

1) 지역정체성의 기본적 의미

지역정체성은 개인의 정체성을 포괄하는 집단개념의 미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정체성은 크게 동질성과 차별성에 바탕을 둔다. 동질성은 시간의 변화에도 불변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연속성과 함께 지역에 대한 일체감과 귀속감을 나타내는 동질화의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차별성은 다른 지역과 다른 특이성 또는 개별성과 함께 고유한 요소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우월성 또는 분별성으로 나누어진다(최재현, 2005:12).

2) 지역정체성 연구의 출현 배경

1970년대 이후 인본주의, 현상학, 구조화이론의 영향을 받은 신지역지리학을 기반으로 지역정체성 연구가 출현했다. 이러한 기본입장에 근거한 다양한 신지역지리학 연구들은 대체로 세가지의 관점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는 지역을 자본주의적 과정의 국지적 반응체로 보는 관점이다. 자본의 축적 및 순환의 과정이 특정 장소에서 작용할 때 지역의 다양성은 여전히 지속되거

나 새롭게 창출된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을 사회적 동질감이 확인되는, 즉 정체성의 장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는 특정 장소에서 문화가 생산 및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에 주목하며, 또한 장소의 개발이나 상징화 작업과 같은 구체적인 공간적 실천들에도 주목한다. 셋째는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에 의거하여 지역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매개체로 보는 관점이다. 즉, 지역이 갖는 이러한 매개의 역할을 통해 사회적 관계는 생산 및 재생산을 계속하게 된다고 본다(이영민, 1999:4-5).

지역사회는, 근대화 및 세계화 시대의 중앙에의 종속성 심화와 세계자본의 식민화 가능성 확대라는 위기상황에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은 생활공간, 생활세계라 불려온 소지역 차원의 지역정체성의 확립이다(이영민, 1999:1). 인간은 지리적 존재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정한 공간을 점유한다. 인간은 그 공간에서 거주하고, 성장한다. 인간은 공간을 생산하기도 한다. 인간은 일상적 삶을 살고 있는 생활세계에 작은 흔적을 표시함으로써 나의 공간임을 알린다. 인간은 그 공간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박승규, 2013:454).

3) 지역정체성 형성의 제도화 과정

지역정체성은 제도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며, 이와 같은 정체성의 형성과정이 곧 지역의 구성과정이다(임병조, 2009:89).

지역정체성의 형성은 제도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제도화란 영역적 경계와 상징, 제도 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지역은 인지공간으로서 영역적 형상이 발달하고, 주민의 의식공간으로서 상징적 형상이 성립되며, 이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화하는 사회공간으로서 제도가 출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지역정체성의 형성과정을 거쳐 성립된다. 제도화 과정은 반드시 시간적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재구성을 지속하는 역동적 과정이다. 먼저, 영역적 형상의 발달과정은 지역이 경계를 획득하고 공간구조에서 독특한 단위로 규정되는 과정이다. 경계의 핵심은 지리적 경계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징적 경계이다. 영역은 지역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영역적 형상의 발달과정은 정치, 경제, 행정 등의 사회적 현상이 지방화되는 것과 관련이 깊으며, 권력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징적 형상의

성립과정에는 지역을 상징하는 특정한 구조가 만들어진 다. 상징적 형상은 지역의 역사나 전통과 관련이 깊으며, 사회적 인식의 재생산을 촉진한다. 상징적 형상은 지역과 관련이 있는 가치나 역할, 특권, 또는 정체성을 강화하거나 이를 법제화하는 기능을 한다. 영역 이데올로기, 국가주의나 지역주의,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사고 등과 같이 지역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신념, 가치, 이데올로기 또는 의미체계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임병조, 2009:93).

제도의 출현 과정은 다양한 역할에 대한 기대에 의해 표준화되고 통제되는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양식이나 시설 등이 출현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제도는 본질적으로 권력과 관련이 깊으며, 정부나 매체처럼 권력집단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권력을 실행해 가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대중매체, 교육기관, 공공시설, 각종 민간 단체, 정치·경제·행정·법률 등과 관련된 기구들이 포함된다. 이들의 역할은 영역적 형상이나 상징적 형상을 드러내고, 강화하며, 공식화하는 것이다. 또한, 집단적 사고체계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생산함으로써 지역의 구성원들을 사회화시키며, 이를 통하여 지역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다(임병조, 2009:93-94).

4) 지역정체성 형성의 주체

오늘날의 지역은 지역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구성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오늘날의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입장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역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관성, 차이, 권력관계 등은 오늘날 지역의 구성과정에 작용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며, 이러한 요소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정체성이다(임병조, 2009:89).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관여하는 다양한 제도, 즉 형성 주체로는 관공서, 민간단체(향토연구단체,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교육기관, 이장단회의, 체육회 등이 있다(임병조, 2009:100). 한편, 지역정체성의 주체, 매개체로서 언론매체, 특히 지역신문의 역할·기능이 중요하다(이영민, 1999:1). 지역의 독특한 상징과 의미체계는 지역정체성을 확립시키며, 활성화시키는 위상을 갖게 된다(홍성흡, 2001:56).

5) 지역정체성의 사회적 공간성

신지역지리학의 핵심은 “지역은 사회적 구성체”라는 신념이다. 이에 의하면, 지역은 고유하고 특이한데, 이러한 지역의 고유성과 특이성은 본래적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다(Cresswell, 2013:71).

인문주의적 시각에서 지역정체성은 개인의 자각과 자의식, 타인과의 연대감 등에 의해 인간이 사회와 연결되는 방식, 사회적 행동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인간의 행위는 사회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구조에 의해 다시 조건화 된다. 지역정체성은 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문화란 지역에 바탕을 두고 법적, 정치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생활양식이며, 사회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면서 지역차이를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자원과 이에 대한 재해석 과정은 문화적으로 생산되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공간에 대한 상징화 과정으로서, 이를 사회적 공간화라 부른다(최재현, 2005:11).

제도적 입장에서 지역정체성은 한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활동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 총체적으로 형성된 독특한 과정이며, 그 지역이 가지는 제도적인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지역이 자연 및 인문적 환경에 의해 조건화된 인간의 사회적 활동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면, 지역정체성은 결국 사회적·공간적인 변증법적 상호작용의 산물이 되는 것이다. 지역정체성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자연·인문·제도의 틀, 그리고 의미성으로 구성된다. 장소의 정체성은 사회적 과정이다. 지역정체성은 주민들이 장소에 대해 부여받은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향토애이다. 지역정체성은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형성되며, 장소와 관련된 일련의 입지에 의해 묶여지는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되고, 사회정체성의 형성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고(최재현, 2005:11).

6) 지역정체성의 일반적 구성요소

특정 지역사회가 지닌 시공간적으로 독특한 요소, 차이와 특수성 등은 지역주민들의 실천과 경험에 영향을 미쳐 정체성이 형성·재형성되는 자원으로서 동원하게 된다. 즉, 특정 지역사회는 외부사회와의 차별성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내부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독특한 역사적·사회문화적·경제적·물리환경적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적인 상징적 의미를 지역주민들이 내재화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지역정체성이 구성·재구성

되게 된다(홍성흡, 2001:56).

어떤 지역사회에서나 공유하고 있는 장소와 과거에 대한 기억을 통해 공통의 정체성과 이미지, 상징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홍성흡, 2001:56). 지역정체성은 독특한 경제활동과 사회집단의 특성, 혹은 특징적 역사문화경관 같은 지역요소들로 구성된다(이영민, 1999:1). 지역정체성은 자연, 경관, 건조환경(인공환경), 문화와 인종(문화와 민족구성), 방언, 경제발전과 쇠퇴, 핵심·주변관계, 주변화, 집단고정관념(공동체의 정형화된 이미지), 역사,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 이상적 사회상(이상향에 대한 관념) 등의 다양한 이미지 구성요소에 의존하여 해설이 가능하다(최재현, 2005:11).

지역정체성은 자연특성, 문화, 인적특징에 의해 지역을 분류하는 방법에 따른 개념으로서, 공간과 사람들을 상징하거나 분별하기 위한 권위적 행위이다. 지역정체성은 문화적·법적·정치적·경제적인 내용이 결합되어 정의되며, 사회문화적 과정이나 경제와 지역적 반응 등의 다양한 주제가 연구된다. 인문주의적 시각에서 지역정체성은 장소의 개념을 중심으로 구체성, 주관성, 상징성, 의도성, 문화적 관계를 중요시한다. 장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인공환경, 사회적 관계의 세가지 구성요소를 복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최재현, 2005:11-12).

지역정체성을 대상이 되는 요소를 바탕으로 구분하면, 역사정체성, 문화정체성, 경관정체성, 산업정체성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역사정체성은 역사적 사실, 인물, 역사현장, 유적 등을, 문화정체성은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무용 등을, 경관정체성은 자연경관, 건축물, 도심경관, 환경, 체험 등을, 산업정체성은 관광, 첨단산업, 전통산업 등을 각각 구성요소로 한다. 또한, 인공환경이나 지역의 문화경관에서 상징물이나 랜드마크 등을 확인하는 것은 지역정체성과 로컬리티에 대한 주민들의 집합적 기억을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최재현, 2005:12-13).

7) 지역정체성의 상징적 형상 중 역사성의 내역

지역정체성은 시간에 따른 다차원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지역정체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연속되어 있는 과거경관의 복원 등이 필요하다. 이는 오늘날의 지역이 과거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발전과정 자체가 연속적인 궤적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정체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차원에서 시간적 변화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요소와 함께 지역차

원에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속시키는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재현, 2005:4).

지역을 장소 또는 제도적 산물로서 어떻게 파악하든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역정체성은 집합적 이미지와 함께 과거로부터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는 지역정체성이 가지는 다층성과 다차원성, 누적성의 특징으로 귀결시킬 수 있다. 지역의 역사성이란 경관으로 해석해 보면,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자의 집합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구성물을 상징하지만, 역사성이 유지되는 것은 합의된 정체성을 유지·발전시키는 주민들의 의도적 행위의 결과이기도 하다. 지역 자체가 역사적 산물이니 만큼 지역정체성은 과거로부터의 문화유산에 초점을 두어 역사와 전통의 보전을 통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최재현, 2005:11-13).

8) 전통도시 지역정체성에서 역사경관의 역동성

전통도시에서의 지역정체성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으로 형태를 띠는 객관적 정체성, 즉 역사경관의 보존이라는 형태를 통해 표출된다. 전통도시로서의 지역정체성은 끊임없이 그 사회적 정당성을 지역의 현재적 요구라는 가치기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역정체성을 객관적으로 가시화하는 역할을 하는 역사경관도 변화하는 사회적 정당성에 따라 그 물리적 형태, 기능, 의미가 변화하면서 선택적으로 보존·유지·생성되게 한다. 이 때 역사경관은 결코 과거의 경관이 아니며, 현대의 도시경관 속에서 사회적 선택에 의해 남아 있게 된 보존대상으로서의 역사경관이다. 따라서, 역사경관은 지역의 현재적 모습을 반영하며, 곧 현재의 경관이다. 이러한 역사경관의 역동성에 관한 관점은 인문주의적 관점의 지리학에 기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의 장소적 특성(입지조건, 부대시설, 주변환경)과 변화하는 지역의 현재적 가치기준, 그리고 역사경관을 경험하는 지역사람들의 사회적, 개인적 특성에 따라, 도시공간 속에서 그 장소의 정체성이 변화하면서 재생, 변형, 생성, 소멸한다. 전통도시로서의 지역정체성은 역사경관을 통해 표출된다(심승희, 1995:43-44).

인간주의 지리학 연구의 중심 주장은, 장소란 협의된 실재, 의도를 지닌 일련의 행위자들에 의한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인본주의 지리학의 관점에서 전통도시의 지역정체성은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도시경관의 역동성으로 설명된다. 여기서 ‘역사경관의 역동성’이란,

“역사경관이면서 현대적 경관이기도 한 역사경관은 새롭게 존재의의를 획득하면서 변모한다. 즉, 역사경관은 지역의 현재적 모습을 반영하며, 곧 현재의 모습”이라는 의미이다(심승희, 1995:47-55).

9) 지역정체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의 기여

전통문화와 지역 이미지를 통한 지역정체성은 관광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관광은 문화의 창조활동이다. 관광이라는 렌즈를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도 지역문화를 재해석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며,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상호공유하고, 관광자체가 지역문화를 판매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최재현, 2005:13).

III. 전통적 촌락지역인 홍성군 결성면의 지역정체성 분석

본 장에서는 전통적 촌락지역인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을 앞에서 고찰한 지역정체성의 이론적 배경에 기반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장에서는 지역은 본래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신지역주의 지리학 이론에 따라 지역은 상징적 경계 중심의 영역적 형상이 발달하고, 역사와 전통 중심의 상징적 형상이 성립되고, 이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화하는 제도가 출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지역정체성의 형성과정, 즉 제도화 과정을 통해서 성립된다는 관점(Cresswell, 2013:71)과 이러한 제도화 과정은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역동적 과정이라는 관점(임병조 2009:93)에서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위와 같은 지역정체성에 관한 관점에 근거하여 결성면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지역정체성, 최근 결성면의 상징적 형상에서 드러나는 지역정체성, 결성면의 근·현대적 지역정체성의 주제,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이 압축된 기록자료, 결성면의 지역정체성과 관련된 최근의 변화 등에 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1. 결성면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지역정체성

1) 결성면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지역정체성의 내역

(1) 고대~근대 시기의 지역정체성

결성면은 일찍이 선사시대에 내포지역 천수만의 중심

부로 금곡천 유역에 인류가 정착하여 농경문화가 발달하였던 곳이며, 특히 고려시대에 이르러선 신금성(神衿城)을 중심으로 하여 농업이 크게 발달하였던 곳이다. 이후, 결성면은 근대에 이르러선 해양과 내륙 사이에 입지한 일대의 교통, 군사, 행정 등의 요충으로서 농업이 매우 잘 발달한 곳이었다(결성면지편찬위원회, 1994:5-11). 요컨대, 결성면은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해양과 내륙간의 중심지에 농업이 발달했던 곳이다.

이와 같은 결성면의 위치 특성에 따른 농업발달에 따라, 결성농요에는 농어업요(農漁業謠)의 특징이 있다(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1993년 제3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결성농요는 이 지역의 장구한 농업발달사의 대표적 징표이다. 특히, 결성면 읍내리 북쪽의 2번 군도 연변에 세워진 결성농요농사박물관은 결성면에서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다른 지역들보다 농업이 잘 발달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결성농요농사박물관은 결성면 홈페이지(<http://gyeolseong.hongseong.go.kr>) 표지화면의 3대 대표 이미지의 하나로 게재되어 있기도 하다.

(2) 백제·신라·고려시대의 지역정체성

백제시대에 결성면의 명칭인 結己(결기)·結己(결이)와 신라시대에 결성면의 명칭인 潔城(결성)(결성면지편찬위원회, 1994:11)은 이 지역에 성(城)이 있었음을 암시하는데, 이러한 성곽의 존재는 이 지역이 시대마다 일대의 교통, 농업, 군사, 행정 등의 통치를 위한 중심지적 요충이었음을 의미한다. 신라 말엽에 도선국사(道禪國師)가 창건하였다는(홍성군 홈페이지) 현존하는 고산사(高山寺)는 이 지역이 당시 일대의 성곽 중심지(城郭中心地)였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림 3. 결성농요농사박물관

출처 : 홍성군, 2013:41.



그림 4. 신라시대의 고산사 대광보전

출처 : 홍성군청 홈페이지(<http://www.hongseong.go.kr>).

고산사는 결성면 무량리에 소재해 있으며, 보물 제 399호이다(홍성군 홈페이지). 고산사는 결성면 홈페이지(<http://gyeolseong.hongseong.go.kr>) 표지화면의 3대 대표 이미지의 하나로 게재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고려시대 결성면의 명칭인 ‘結城’(결성)(결성면 지편찬위원회, 1994:11)은 백제시대의 명칭인 結己(결기)·結己(결이)와 신라시대의 ‘潔城’(결성)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성이 있었음을 암시하는데, 이는 결성지역이 당시 ‘성곽 중심지’로서 일대의 교통, 농업, 군사, 행정 등의 중심지적 요충이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백제시대의 명칭인 結己(결기)·結己(결이)와 신라시대의 ‘潔城’(결성)이 고려시대에 들어 ‘結城’(결성)으로 변경된 것은 결성지역의 성(城)과 관련된 기능, 즉 성을 핵심으로 한 중심지적 기능이 고려시대에 더욱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결성현의 읍성으로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신금성지(神衿城址)는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특히, 신금성은 내륙 일대의 일반적인 읍치(邑治) 수준 통치성(統治城)의 역할 이외에 해양을 통제하는 수영(水營)의 역할도 일부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금성지는 고려 때 문취가 성을 쌓았으며, 뒤에 정사적이 이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東國輿地勝覽』(동국여지승람)에 성의 주위가 1,300여 척(尺)이라고 되어 있다(결성면지편찬위원회, 1994:6).

(3) 조선시대의 지역정체성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결성면은 인접한 홍주지역과 더



그림 5. 고려시대의 신금성지

출처 : 홍성군청 홈페이지(<http://www.hongseong.go.kr>).

불어 군·현급(郡·縣級)의 지방행정 중심지로 대두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은 18세기 초반에 제작된 「여지도」(輿地圖) 중 호서도(湖西圖)(국립중앙도서관, 2014:13)나 19세기 중반에 제작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등의 각종 지도들에 잘 나타나고 있다. 호서도와 「대동여지도」를 보면, 당시 충청도 서부 해안지역에 結城(결성)이 洪州(홍주)와 동일한 현(縣) 수준의 행정구역으로 각각 표기되어 있어서, 당시 결성이 충청도 일대의 주요 중심지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에 군·현 수준의 행정구역이던 결성지역에는 배후지역에 해당하는 면(面) 행정구역과 중심지적 내부구조인 읍치(邑治)를 보유했음이 여러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결성읍치의 내부구조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자료는 1790년대의 ‘결성관아도’(結城官衙圖)(홍성군지편찬위원회, 1993:1028)이다. 조선시대 결성읍치의 일부는 아직도 남아 있는데, 결성읍성, 결성관아(동헌, 책실, 형방청 등), 결성향교 등이 그것들이다.

18세기 초반 결성현의 행정구역과 읍치를 나타낸 그림(국립중앙도서관, 2012:14)을 보면, 1720년대 당시 결성현의 면과 읍치, 도로, 해만·산지·하천·섬 등의 지형, 읍성, 읍치의 주요 기능체가 정교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 그림에는 인접한 홍주목 행정구역과의 경계 일대가 잘 표시되어 있으며, 특히 읍치의 주요 기능체들이 읍성 성곽 내부와 외부에 입지해 있는 것이 잘 드러나 있는데, 성곽 내부에는 관아, 객사, 창(倉)이 입지해 있고, 성곽 외부에는 향교와 해창이 입지해 있다. 결성읍성은 일대의 진산(鎭山)인 석당산(石堂山)에 축조되었으며, 산 중턱에 결성아문(結城衙門), 결성동헌(結城東軒), 결성객사(結城客舍) 등으로 구성된 결성관아(結城官衙)³⁾가 입지해 있었다.



그림 6. 18세기 초반 결성현 일대(좌)와 19세기 중반의 결성현 일대(우)

출처 : (좌) 국립중앙도서관, 2014:13, (우) 「大東輿地圖」(대동여지도).

* 좌측 호서도에서 원의 내부에 결성(結城)과 홍주(洪州)가 함께 표시되어 있고, 우측 「대동여지도」에서 각각의 원에 결성과 홍주가 따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 7. 18세기 초반의 결성현의 행정구역과 읍치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2012:14.

* 그림은 「輿地圖」(여지도, 1720년대)의 결성현 부분으로, 그림에서 원의 내부가 결성현의 읍치이다.

결성관아 일대에는 현재 결성아문, 결성동헌, 책실(冊室), 형방청(刑房廳)⁴⁾ 등이 남아 있다. 결성객사는 결성읍성 성곽 내부에 있었는데, 현재는 터만 남아 있다. 결성객사 터에는 결성객사시비(結城客舍詩碑)⁵⁾가 세워져 있다. 결성아문의 아래에는 ‘현감권대응영세불망비(縣監權大膺永世不忘碑)’ 등의 기념비들이 모여져 있다. 최근에 편찬된 「결성면지」(결성면지편찬위원회, 2015)의 앞 표지와 뒷 표지에 결성관아의 전경에 해당하는 컬러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의 결성면 사람들이 결성면의 유적 가운데 결성관아를 제일로 간주하고 있음은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성향교는 결성읍성 성곽에서 약간 떨어진 교촌(校村) 마을에 입지해 있다. 결성향교는 결성이 조선시대에 인근의 홍주와 더불어 군현 수준의 중요 읍치의 하나였음을 말해주는 상징적 유적이다. 결성향교는 문화재자료 158호로 고려 현종 원년(1010년)에 건립되었으며, 공자 외 27위를 봉양하고, 매년 석전대제를 열고 있다. 결



그림 8. 결성읍성(좌)과 결성아문(우)

출처 : 홍성군청 홈페이지(<http://www.hongseong.go.kr>)



그림 9. 결성객사터의 결성객사시비(좌)와 결성향교(우)

출처 : (좌) 2014년 8월 31일 필자 촬영, (우) 2014년 8월 30일 필자 촬영.

성향교는 결성면 홈페이지(<http://gyeolseong.hongseong.go.kr>) 화면의 3대 대표 이미지의 하나로 게재되어 있기도 하다.

(4) 일제강점기의 지역정체성

일제강점기에 들어 1914년에 결성군(結城郡)이 인접한 홍주군(洪州郡)에 통폐합되면서 결성군은 새로 출범한 홍성군의 1개면인 용천면(龍川面)으로 전락되었다가 1917년 결성면으로의 면명개칭(面名改稱)을 거쳐(국토지리정보원, 2012:609), 이후 홍성군 서부지역의 평범한 면행정단위 농촌지역으로 전락했는데, 이는 지역정체성 중 영역적 형상이 크게 변경된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는 결성면 일대가 고대에 진번국(眞蕃國)과 고비리국(古卑離國)이라는 고대국이 형태로 존재했고, 백제, 신라, 고려 및 조선이라는 국가 형태를 거치면서 각각 結己(결기)·結已(결이)(백제시대), 潔城(결성)(신라시대) 및 結城(결성)(고려·조선시대)이라는 군·현 수준의 지방행정 중심지 형태로 존재하다가 근대 20세기 초에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구역인 면(面)으로 격하된 것을 의미한다.

1914년에 조선총독부가 근대적 행정구역 통폐합 직후 발간한 결성면과 그 주변지역의 5만분의 일 지형도(朝鮮總督府, 1918)에는 당시 결성면 지역의 행정구역을 비롯하여 해양, 산지, 하천, 평야 등의 자연환경 및 행정구역, 도로망, 취락 등의 인문환경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1914년 당시 결성면 사람들에게 행정구역의 격하에 따른 영역적 형상의 대폭 축소로 인한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당시 실제의 지리적 경계가 면단위로 축소된 것에 그치지 않고, 조선시대 이래의 상징적 경계가 축소되는 것에서 충격이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1914년 이후 결성면 사람들은 역사적 고토(歷史的故土)로서 1914년 이전의 조선시대 결성현·결성군의 영



그림 10. 1910년대 후반 결성면과 그 주변지역

출처 : 朝鮮總督府, 1918.

* 그림에서 선의 내부가 결성면 행정구역이다.

역적 형상을 역사적 및 지리적 관성(慣性)으로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결성면을 포함한 홍성군 일대는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는데, 일제강점기 최고의 독립운동 영웅인 만해 한용운 선사(萬海 韓龍雲 禪師, 1879-1944년)와 백야 김좌진 장군(白冶 金佐鎭 將軍, 1889-1930년)은 모두 홍성군 출신이다. 만해는 결성면 출신이고, 백야는 결성면



그림 11. 만해한용운생가지(좌)와 만해문학체험관(우)

출처 : 2014년 8월 31일 필자 촬영.



그림 12. 만해문학체험관의 만해어록비(좌)와 결성면사무소 구내의 만해한용운시비(우)

출처 : 2014년 8월 31일 필자 촬영.

에 연접해 있는 갈산면(葛山面) 출신이다(홍성군 홈페이지). 따라서, 오늘날 결성면은 일제강점기에 만해의 출생지로서 백야의 출생지인 인근의 홍성군 갈산면 일대와 더불어 ‘독립운동 성지(獨立運動 聖地)’로 자리매김해 있다.

결성면 성곡리에는 독립운동 성지라는 상징적 형상으로서 만해한용운생가지와 만해문학체험관이 있다.⁶⁾ 만해 한용운 선생 관련 상징적 형상은 만해문학체험관 앞의 만해어록비(萬海語錄碑)와 결성면사무소 구내의 만해한용운시비(萬海韓龍雲詩碑)로도 드러나고 있다.⁷⁾

(5) 해방 이후의 지역정체성

일제강점기 초기 1914년에 기존의 결성군은 결성군과 홍주군이 통합되어 새로이 출범한 홍성군의 1개 면인 결성면으로(국토지리정보원, 2012:609) 전락했고, 이후 결성면은 1945년 해방을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100여년에 걸친 기간 동안 홍성군 서부지역의 일반적인 순수

농촌지역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격하와 더불어 홍성읍을 지나는 장항선 철도의 개통, 홍성읍 중심의 근대적 신작로 개설, 홍성읍 중심지 기능의 급격한 발전 등으로 인해 미시적 차원의 일대의 중심지 기능은 물론 거시적 차원의 서해안 천수만과 충청도 내륙 간의 적환지 기능도 상실했다.

일제강점기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난 100여년간 결성면의 쇠퇴는 홍성군에서 결성면의 인구비중 감소와 결성면의 절대인구수 감소로 드러나고 있다. 즉, 홍성군에서 결성면의 인구비중은 1925년에 8.33%(홍성군 전체 인구 82,053명)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2.47%(홍성군 전체인구 94,553명)로 나타나고 있고, 절대인구수도 1925년에 6,841명(홍성군의 11개 면 중 7위)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2,338명(11개 읍면 중 11위)으로 나타나고 있다(朝鮮總督府, 1925:11; 홍성군 홈페이지).

1945년 해방 이후 결성면의 쇠퇴는 1970-1980년대에 걸친 결성장(結城場) 등 정기시장의 소멸에 의해서도 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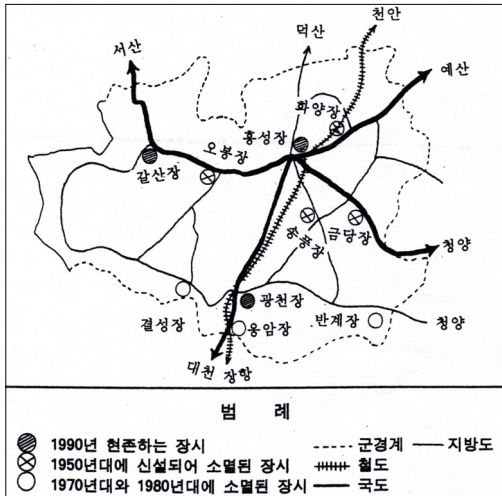


그림 13. 해방 이후 홍성군 정거시장체계에 편입되었다가 1970-1980년대에 소멸된 결성장

출처 : 홍성군지편찬위원회, 1993:1526.

러나고 있다(홍성군지편찬위원회, 1993:1526). 해방 이후 홍성군 일대의 도로와 철도가 홍성읍과 광천읍 중심으로 개설되면서 당시 홍성군의 정거시장체계도 장항선 연변의 홍성장 및 광천장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한 도로망 및 철도망에서 제외된 결성장(結城場) 등 결성면의 정거시장은 홍성군의 정거시장체계의 일부로 편입되었고, 1970-1980년대를 지니면서 소멸되었다. 이러한 1970-1980년대의 결성장의 소멸은 결성면의 기반기능으로서의 농업과 그에 의해 지지되던 취락의 쇠퇴를 의미한다.

2) 결성면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지역정체성의 의의

앞에서 결성면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지역정체성을 시대별로 고찰한 결과, 고대~근대 시기의 경우 '내포지역 천수만 중심부의 해양내륙 간 적환지에 입지한 농업 발달지'로, 백제시대, 신라시대 및 고려시대의 경우 '교통, 농업, 군사, 행정 등의 요충으로서의 성곽 중심지'로, 조선시대의 경우 '군현 수준의 지방행정 중심지'로, 일제강점기의 경우 '면단위로 격하된 농촌지역'과 '독립운동 성지'로, 그리고 해방 이후의 경우 '퇴락한 저발전 상태의 순수농촌지역'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성면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지역정체성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결성면의 시대별 지역정체성 형성은 전체적으로는 제도적 요소가 지역정체성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제도화 과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제도화 과정의 주체, 즉 제도적 요소의 역할은 시대마다의 정치기구, 행정기관, 교육기관, 종교단체 등이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역사와 전통이 역사경관으로 구체적으로 존재하면서 사회적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역사경관은 결코 과거의 경관이 아니며, 현대의 도시경관 속에서 사회적 선택에 의해 남아 있게 된 것으로, 지역의 현재적 모습을 반영하는 현재의 경관이다. 즉, 역사경관은 그 자체의 여러 가지 장소적 성격과 변화하는 지역의 현재적 상황과 가치기준에 따라 재생, 변형, 생성, 소멸하기도 하는 역동성을 가지면서 현재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데(심승희, 1995:44-49), 이러한 상징적 형상으로서의 역사경관에 대한 관점은 결성면의 사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성면의 시대별 지역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상징적 형상은 역사와 전통을 중심적 매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결성면의 경우 시대별로 역사경관 중심으로 드러난 상징적 형상은 지리적 경계, 상징적 경계 등과 관련된 영역적 형상에 기반하여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최근 결성면의 상징적 형상에서 드러나는 지역정체성

결성면의 상징적 형상으로는 앞의 '결성면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지역정체성' 소절에서 개관한 결성농요농사박물관, 신라시대 고산사, 고려시대 신금성지, 조선시대 결성읍치의 읍성·관아·향교, 일제강점기 만해 한용운 선사 유적 이외에, 100여년 역사의 결성면사무소와 결성초등학교도 근·현대 시기 결성면의 상징적 형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결성면의 역사적 측면의 상징적 형상은 앞에서 기술했으므로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결성면의 근·현대 100여년 간의 지역정체성으로서의 결성면사무소와 결성초등학교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결성면지편찬위원회가 1994년에 출간한 결성면지(結城面誌)인 「유서깊은 결성」(由緒 깊은 結城)에 게재된 결성면의 심볼마크, 면새·면꽃·면나무, 노래

등과 결성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gses,cnees.kr>)에 게재된 교가 등에 관해서만 분석하고자 한다.

1) 최근 결성면의 상징적 형상에서 드러나는 지역 정체성의 내역

(1) 결성면의 심볼마크에서 드러나는 지역정체성

결성면의 심볼마크는 일종의 로고 형태로 되어 있는데, 결성의 2대 상징을 ‘옛 결성읍치의 주축인 결성읍성’과 ‘결성의 진산인 석당산’으로 간주하고, 결성읍성을 환형(環形)으로, 석당산을 산형(山形)으로 각각 표현하고, 결성읍성이 석당산을 에워싸고 있는 형국을 취하고 있다(결성면지편찬위원회, 1994:앞표지). 결성면의 심볼마크가 결성면지인 「유서깊은 결성」의 앞 표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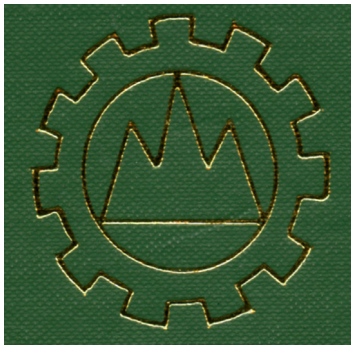


그림 14. 결성면의 심볼마크

출처 : 결성면지편찬위원회, 1994:앞표지.

(2) 결성면의 면새·면꽃·면나무에서 드러나는 지역 정체성

결성면의 면새(면조 [面鳥])는 까치, 면꽃(면화 [面花])은 목련, 그리고 면나무(면목 [面木])는 회화나무(귀화나무 [槐花나무], 화나무)로 각각 제시되어 있는데(결성면지편찬위원회, 1994:3), 이것들에서는 지역정체성의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3) 결성면의 노래에서 드러나는 지역정체성

일반적으로 면 단위지역에는 면민의 노래가 없으나, 결성면에는 ‘결성면민의 노래’ 뿐만 아니라, 매우 특이하게 ‘결성풍류가(結城風流歌)’, ‘지형의 노래(地形의 노래)’, ‘결성찬가(結城讚歌)’ 등이 있고, 이러한 노래들은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을 매우 잘 나타내고 있다.

‘결성면민의 노래’는 이소라가 곡을 붙이고, 배동순이 노래말을 썼는데, 총 6개의 마디로 구성되어 있고, 뒤의 3개 마디는 후렴이다(결성면지편찬위원회, 1994:12-13). 이 노래는 결성면의 역사와 문화가 석당산·저울산·청룡산, 금곡천, 서해·천수만, 구리내들·영안이들 등의 자연 환경과 어우러져 집집마다 마을마다 웃음꽃 피고, 이를 통해 우리 고장이 다달이 희망차게 발전한다는 내용이다.

‘결성풍류가’는 결성면에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일종의 민가(民歌)로 소절 구분없이 19줄로 구성되어 있는데(결성면지편찬위원회, 1994:14), 결성면의 사회, 문화, 역사, 지리를 소재로 하여 결성면의 아름다움, 희망, 여유를 노래하고 있다. 특히, 이 노래는 결성면을 현실에 실재하는 유불선(儒佛仙)이 어우러진 길지낙토(吉地樂土)로 그려내고 있어서 결성면 주민들의 선천적 낙천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지형의 노래’는 ‘청충마의 노래’(靑驄馬의 노래)라고도 부르며, 곡이 없이 2개의 소절로 구성되어 있는데(결성면지편찬위원회, 1994:15), 결성면의 산지, 하천 및 평야로 구성된 지형을 “갈기와 꼬리가 파르스름한 백마(白馬)” 또는 “푸른색과 흰색의 털이 섞여 있는 준마(駿馬)”를 의미하는 ‘청충마’로 그리고, 다시 청충마를 ‘천마(天馬)’로 그리면서 결성인의 기질이 청충마·천마와 같다고 적고 있다. 특히, 이 노래는 결성면 주민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순응성(順應性)과 주체성(主體性)을 잘 드러내고 있다.

‘결성찬가’는 2개의 소절과 후렴구로 구성되어 있다(결성면지편찬위원회, 1994:15). 이 노래는 결성면 주민들이 풍요로운 자연환경에서 농경에 종사하면서 역사시대부터 평화롭고 슬기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찬양하고, 이러한 복된 생활이 앞날에도 이어지길 기원하고 있다. 이 노래 역시 결성주민들의 결성면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미래지향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4) 결성초등학교 교가에서 드러나는 지역정체성

결성초등학교 교가는 2개의 소절로 구성되어 있다(결성초등학교 홈페이지). 이 노래는 1절에서 아동들이 결성면의 진산인 석당산의 푸른 정기를 받은 찬란한 옛땅에서 자라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고, 2절에서도 아동들이 역사의 큰 입김서려 있는 찬란한 티전에서 자라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 노래는 미래세대인 아동들에게 결성면의 자랑스런 역사와 찬란한 자연을 강조하고 있다.



① 면새: 까치



② 면꽃: 목련



③ 면나무: 회화나무

그림 15. 결성면의 상징

출처 : ① 두산동아, 1999a:419; ② 두산동아, 1999b:371; ③ 두산동아, 1999c:516.

결성면민의 노래

작사: 이소라, 작곡: 배동순

(1) 결기의 오랜 역사 석당산에 머물고 / 동헌에 아침 햇살 옛 문화 키워왔네 / 구리내들 굽이마다 기름진 옥토 (2) 이 고장 지켜주는 저울산의 기맥 / 신금성의 오랜 사적 이제와 새롭구나 / 금곡천 골골마다 기름진 옥토 (3) 청룡산 높은 기상 서해를 굽어볼제 / 천수만 새문화가 바람따라 이누나 / 영안이를 옹허리에 기름진 옥토 / (후렴) 얼씨구 좋구나 상사리야 / 집집마다 마을마다 웃음꽃 피누나 / 다달이 발전하는 우리 결성

결성풍류가

어와 벗님네야 백제땅 결성으로 구경을 가자구나 / 성호에서 배를 타고 관란정 돌아드니 8학사가 노니는 듯 / 성남에 비친 별은 하지를 스쳐가는 노일성이 분명한데 / 석당산 올라보니 관청의 옛모습 좌우촌에 즐비하네 / 교촌의 옛문화 밝혀주는 봉화산이 나날이 밝았기로 / 우러내들 황금물결 곡식익어 해창에 가득가득 쌓여지니 / 금곡에 흐르는 물 풍류도의 파도소리 풍정이 장관이라 / 동호에 뜨는 달 밤으로 비쳐주니 의시온하 낙구천일례 / 성곡의 고대토성 삼한의 옛문화 다소곳이 간직했네 / 무량의 고산사 황금불은 감중연 진리를 찾는구나 / 북두의 중성으로 형산이 특립하니 오악지 명산이요 / 무곡수 맑은물이 구수동을 동류하니 주교가 완성이라 / 소리개 날아드는 고개아래 만월형은 모과와의 장춘이라 / 와리와 용호가 상접하니 와룡천이 구비쳐 열리도다 / 형산에 발을 깔고 두지동에서 약을 캐니 진사장원 할 곳이요 / 부해정에 고기낚고 해산에 달마중가니 서지가 영안이라 / 중리로 돌아드니 용생곡 호생굴은 그릉동지 산천이요 / 노루봉 밝은달이 유천청풍 돌아드니 대흥동지 광경이라 / 동자에 청주부여라 원천에 목욕하고 거수아래 쉬어보세

지형의 노래(청충마의 노래)

(1) 저울산이 등이 되고 청룡이 배가 되니 / 와룡천 목덜미에 금곡이 둔부로다 / 북쪽을 향하여 달리는 그 기상 / 하늘을 나는 천마가 되었구나 / (2) 동서의 산맥이 남으로 달리고 / 남북의 두내가 평야를 이루었네 / 산천정기 두내가 평야를 이루었네 / 산천정기 모두 빼난 청충마의 그 모습 / 이 지맥 결성인의 기질이라네

결성찬가

(1) 청룡산 줄기줄기 뻗어내린 곳 / 백제의 옛문화 아를지누나 / 대대로 내려오는 결성농요는 / 행복의 복음자리 요람이었네 / (2) 석당산에 자리한 동헌의 햇살 / 고려조선 그역사 간직하였네 / 드높은 최선달의 판소리는 / 밝고맑은 인심을 노래하였네 / (후렴) 평화의 내고장 길이 가꾸어 / 그 이름 빛내리라 '결기의 슬기' / ('결성이라네', '우리 결성', '결기의 혼')

그림 16. 결성면의 노래

출처 : 결성면지편찬위원회, 1994:12-15.

결성초등학교 교가

작사: 노원호, 작곡: 나동순

(1) 석당산 푸른정기 온몸에 번져 / 빛나게 갈고닦은 우리의 마음 / 언제나 푸른 숲과 함께 커간다 / 아 찬란한 옛땅위에 자라갈 우리 / 푸른 꿈 키우리라 결성초등학교 (2) 역사의 큰 입김 서려 있는 땅 / 아침마다 새로운 햇살이 퍼져 / 언제나 슬기롭고 튼튼하게 커간다 / 아 찬란한 터전위에 자라갈 우리 / 쓸모있는 키우리라 결성초등학교

그림 17. 결성초등학교 교가

출처 : 결성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gses.cnees.kr>).

2) 최근 결성면의 상징적 형상에서 드러나는 지역 정체성의 의의

결성면의 상징적 형상으로서의 지역정체성은 결성면의 심볼마크, 결성면의 노래, 결성초등학교 교가 등을 통해서 상세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징적 형상들에서 나타나는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은 결성면의 역사, 지리, 문화, 이상(理想)에 관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위와 같은 결성면의 상징적 형상은 앞에서 고찰한 결성면의 역사에서 드러난 지역정체성을 비롯하여 결성면 고유의 지리적 및 문화적 특성에 기반하여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성면의 근·현대적 지역정체성 형성의 주제

1) 결성면의 근·현대적 지역정체성 형성 주체의 내역

일제강점기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결성면의 근·현대적 지역정체성의 형성과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해 온 두 개의 주체가 있다면, 결성면사무소와 결성초등학교라고 할 수 있다. 결성면사무소와 결성초등학교는 1910년대 전반에 함께 출범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근대

화의 물결 속에서 결성면과 부침을 함께 해 왔다.

결성면사무소는 1914년 홍성군 용천면사무소로 출범한 이래 1917년 결성면사무소로의 개칭을 거쳐(국토지리정보원, 2012:609) 지난 100여 년간 결성면의 행정업무를 총괄해 왔다. 결성면사무소는 결성면의 행정의 근·현대화에 주체적 역할을 해왔고, 이는 결성면의 지역정체성 형성의 주요한 기반이 되었다. 결성면사무소는 석당산 기슭의 명당에 입지해 있는데, 결성면사무소 바로 위에는 조선시대 결성관아의 유적이 있다.

결성면사무소는 일제강점기에는 결성관아의 결성동헌에 입지해 있었다(결성면지편찬위원회, 1994:73).

결성초등학교는 1911년에 개교하여(결성초등학교 홈페이지) 100년 넘게 결성면과 부침을 함께 하면서 근대적 보통교육을 통한 지역정체성의 형성과 유지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결성초등학교는 지역발전의 결정적 기반이 되어 왔다. 결성초등학교는 결성면 중심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입지해 있고, 그것도 결성면의 전통적 중심지의 진산(鎭山)인 석당산의 북동쪽 기슭 33.2m 높이의 지점에 입지해 있다. 결성초등학교의 입지는 결성면 중심지에서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읍치의 진산인 석당산 중턱에 입지한 결성초등학교



그림 18. 결성면사무소(좌)와 결성초등학교(우)

출처 : 2014년 8월 30-31일 필자 촬영.

* 결성면사무소와 결성초등학교는 모두 결성면의 진산인 석당산에 입지해 있다.



그림 19. 결성초등학교 내의 500여년 수령의 은행나무(좌)와 개교 100주년 기념탑(우)

출처 : 2014년 8월 31일 필자 촬영.

에서 밖을 내다보면, 북서쪽으로 청룡산이 보이고, 북동쪽으로 형산이 보인다. 결성초등학교는 결성읍치의 진산인 석당산에 자리하여 결성면 사람들이 역사 이래 신성시 해온 명산인 청룡산과 형산을 응시하고 있다.

결성면사무소가 행정의 측면에서 결성면의 근·현대적 지역정체성의 형성과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면, 결성초등학교는 교육의 측면에서 결성면의 근대적 지역정체성의 형성과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결성면사무소 안의 마당에는 만해한용운시비가 있는데, 시비의 앞면에는 만해의 시(詩)인 ‘나룻배와 행인’이 새겨져 있다. 이 시비가 결성면사무소 안마당에 있다는 것은 결성면 사람들이 만해의 독립정신을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의 으뜸으로 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시비의 뒷면에는 결성면의 역사를 압축한 결성연혁(結城沿革)이 적혀 있다.

결성초등학교 구내에는 1982년 지정 당시 수령이 474년으로 기입된 은행나무 보호수가 있다. 이 은행나무는 결성초등학교 100년사의 역사적 증거이자, 결성면의 장구한 역사 그 자체이다. 결성초등학교 구내에는 2011년 6월 제막된 ‘결성초등학교개교100주년기념탑’이 있는데, 이 탑의 앞면에는 “靑龍의 明堂 精氣받은 結城人의 雄志”(청룡의 명당 정기받은 결성인의 웅지)라고 쓰여 있으며, 뒷면에는 결성초등학교 연혁이 쓰여 있다.⁸⁾ 결성초등학교의 교기에는 석당산이 초록색의 삼각형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삼각형 윗 부분에 ‘결성’ 자구가 새겨진 도형이 그려져 있다. 이는 학교가 결성면의 진산인 석당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학교가 석당산 만큼 중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20세기 이래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을 형성해 온 결성면사무소와 결성초등학교는 현재도 결성면의 찬란한 역사, 지리, 문화 및 이상에 대한 드높은 자긍심을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기관장의 인사말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다. 결성면사무소의 면장 인사말은 홍성군의 행정구역의 역사가 결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언급하면서 그의 거의 대부분을 결성면의 찬란한 역사, 지리, 문화 및 이상에 관한 자랑으로 채우고 있고, 결성초등학교의 교장 인사말도 역시 앞 부분을 결성면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큰 자랑으로 시작하고 있다.

결성면사무소 홈페이지(<http://gyeolseong.hongseong.go.kr>)에 게재된 결성면장의 인사말 중 결성면의 찬란한 역사, 지리, 문화 및 이상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결성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고장입니다. 홍성군의 행정구역의 역사가 결성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천수만 일대를 지키던 군사의 요충지였으며(신금성지, 결성읍성지가 보존됨), 민족의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선사가 탄생하신 곳이기도 하고, 대통령상에 빛나는 결성농요와 용대기놀이가 그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기도 합니다. 옛 현감의 치소인 동헌, 형방청과 고산사 대광보전(보물) 등이 예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결성농요농사박물관이 최근에 개관되어 1,020여점의 농경문화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만해체험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결성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gses.cnees.kr>)에 게재된 결성초등학교장의 인사말 중 결성면의 자랑스런 역사와 지리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옛 결성현에 위치하며, 1911년에 개교하여 102회 6,910명의 학생을 배출해 낸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교로 석당산 아래”

2) 결성면의 근·현대적 지역정체성 형성 주체의 의의

결성면사무소와 결성초등학교는 일제강점기에서 최근에 이르는 근·현대의 시기에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을 형성해 온 주체, 즉 지역정체성을 제도화해 온 제도 내지 제도적 요소이면서 근·현대 결성면의 상징적 형상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결성면사무소와 결성초등학교는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결성면의 역사, 지리, 문화, 이상 등을 기반으로 했음은 물론이다. 결성면에는 결성면의 지역정체성 형성의 제도적 주체로서 근·현대에 결성면사무소 이외의 행정기관, 결성초등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교회 등의 종교시설, 각종 사회단체 등이 있었으나, 20세기 초 이래 지속적이면서 공식적으로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체성 형성에 기여한 제도적 주체는 결성면사무소와 결성초등학교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이 압축된 기록자료

1)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이 압축된 기록자료의 내역

1994년에 결성면사무소가 구성한 결성면지편찬위원회는 결성면지인 「유서깊은 결성」⁹⁾을 출간한 바 있는데, 이 「유서깊은 결성」에는 선사부터 1990년대 전반(前半)에 이르는 기간 동안 결성면의 지리, 역사, 문화, 산업·경제, 성씨·인물, 문화재·사적지, 민속, 문학, 행정·선거·기관·단체, 리사(里史) 등의 방대한 내용을 총10편·49장·149절·부록·1,108쪽에 걸쳐 체계적이고 집약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유서깊은 결성」에는 결성면의 상징으로서 결성면의 심볼마크, 면새, 면꽃, 면나무, 결성면민의 노래, 결성풍류가, 지형(청충마)의 노래, 결성찬가 등이 게재되어 있다. 결성면지 「유서깊은 결성」은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을 총괄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결성면은 2015년에 결성면지편찬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면지인 「결성면지」를 출간했다. 이 「결성면지」는 총2편·7장·27절·736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론편에

서는 지리, 역사, 행정·정치, 산업·경제, 전통·민속, 기관단체, 문화유적 등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 마을 자료편에는 25개 마을에 관한 내용을 각각 기술하고 있으며, 「유서깊은 결성」이 편찬된 1994년 이후의 결성면의 역사, 지리, 문화 등의 변화상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이 「결성면지」에는 결성면의 1910년대 5만분의 1 지형도, 항공사진 등 각종 지도 자료가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2)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이 압축된 기록자료의 의의

「유서깊은 결성」(1994)과 「결성면지」(2015)는 결성면의 영역적 형상 및 상징적 형상과 같은 지역정체성이 압축된 기록자료이다. 앞에서 결성면사무소를 결성초등학교와 더불어서 결성면의 근·현대적 지역정체성 형성의 주체라고 했는데, 이는 결성면이 결성면지편찬위원회를 통해서 결성면의 선사 이래 최근까지의 역사, 지리, 문화, 이상 등을 집대성한 결성면지들을 편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연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시·군·구 수준의 지역에는 대체로 지역정체성 형성의 주체, 즉 제도의 하나로서 신문사 등의 언론기관이 있지만, 면 수준의 지역에는 언론기관이 없어서, 면지역에서 신문사 등의 언론기관에 의한 일상적인 지역정체성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면사무소와 같은 행정기관이 조직한 면지편찬위원회 같은 기관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편찬되는 면지 등이 신문사 등의 언론기관의 지역정체성 형성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성면의 지역정체성과 관련된 최근의 변화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이 급변하게 된 계기는 1914년에 인접한 홍주군과 통폐합되어 홍성군의 1개면으로 전락한 것이었는데, 이후 지난 100여 년간 결성면은 지방행정·교육 중심지 기능, 해륙간 적환지 기능, 어업업과 농업 생산 중심지 기능 등의 상실과 더불어 인구규모의 절대적 감소를 겪었다. 현재, 결성면은 미작과 전작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농업만을 영위하고 있고, 인구는 2015년 말 기준으로 홍성군 11개 읍면 중 11위(홍성군 전체 인구의 2.47%)인 2,338명에 불과하여, 매우 퇴락한 면단위 농업지역으로 전락해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의 최후보루격인 '홍성군(洪城郡)' 지명에서 결성군(結城郡) 유래 부분인 '성(城)'자를 삭제하고, 홍주군(洪州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운동이 홍성군의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다. 부연하면, 1914년에 일제가 전국적 행정구역 통폐합 과정에서 당시 홍주군과 결성군을 통폐합할 때, 홍주군의 '홍'자와 결성군의 '성'자를 결합해서 새로운 '홍성군' 지명을 만들었는데, 2015년에 이른바 홍주지명되찾기범군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1,000여년전(1018년)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으나, 100여년전(1914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변경된 홍주 지명을 되찾아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지역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홍주지명되찾기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문화일보 홈페이지).

지명은 영역, 역사, 문화, 이상 등을 가장 압축적으로 내포한 지역정체성의 최고 핵심이라는 점에서 보면, 홍성 지명에서 결성을 의미하는 '성'자가 삭제되고, 홍주로 변경되는 것은 홍주 입장에서는 1,000여년 역사의 홍주 지명 복원이고, 100여년만의 일제 잔재 청산이지만, 결성 입장에서 홍성군 지명 차원에서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이 최종적으로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태가 현실화되면, 결성면의 지역정체성 중 영역적 형상에서 관념 차원으로나마 잔존했던 전근대적 군·현시대의 역사적 고토의식(歷史的 故土意識)마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홍주지명되찾기운동과 관련하여 결성면에서의 조직적 지지 움직임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요약, 결론 및 과제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인본주의에 기반한 신지역지리학 연구의 일환으로 등장한 지역정체성 형성 이론 중 제도화 이론에 주로 근거하여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을 사례로 전통적 촌락지역의 지역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주요 이론적 배경인 지역정체성 형성과 관련한 제도화 이론은 대체로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을 지역정체성 형성의 주요 구성요소로 하고, 제도적 요소 내지 제도를 지역정체성 형성의 주요 주체로 하고 있다. 제도화 이론에서 지역정체성의 형성은 제도

화에 의해 이루어지며,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 및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영역적 형상은 상징적 경계를, 상징적 형상은 역사·전통을, 제도는 행정·교육·언론기관, 사회단체 등을 각각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결성면은 일반적으로는 전통적 촌락지역으로서 순수농촌지역이며, 상대적 저발전지역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고유하게는 조선시대 말기까지도 군·현 수준의 지방행정구역으로 존재하다가 1914년 비록 일제에 의해서이지만, 근대적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면단위 행정구역으로 격하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전통적 촌락지역의 지역정체성 파악을 위해서 우선 구체적으로 연구대상 지역인 결성면의 지역정체성 형성의 주요 구성요소인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을 파악하고자 했고, 이어서 결성면의 지역정체성 형성의 주체로서의 제도적 요소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끝으로 결성면 지역정체성 형성의 최근의 변화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답사와 문헌조사를 수행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지역정체성 사례연구의 성과가 더 많이 축적되어야 하고, 기존 사례연구 중에서도 촌락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시론적 연구로 한정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성면의 지역정체성 형성의 주요 구성요소인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결성면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을 파악하고, 이어서 결성면의 역사를 포함한 지리, 문화, 이상 등을 포함한 상징적 형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결성면의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으로 구성된 지역정체성을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내포지역 천수만 중심부의 해양-내륙 간 적환지에 입지한 농업 발달지(고대-근대)', '교통, 농업, 군사, 행정 등의 요충으로서의 성곽 중심지(백제·신라·고려시대)', '군현 수준의 지방행정 중심지(조선시대)', '면단위로 격하된 농촌지역 및 독립운동 성지(일제강점기)', '퇴락한 저개발 상태의 순수농촌지역(해방 이후) 등으로 정리된다. 또한, 현재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은 결성면의 심볼마크, 결성면의 면새·면꽃·면나무, 결성면의 노래, 결성초등학교 교가 등의 상징적 형상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징적 형상에는 결성면의 역사적 측면의 지역정체성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고, 결성면의 자연 및 인

문지리적 특성, 문화적 특징, 이상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결성면 사람들은 결성군이 결성면으로 격하된 1914년 이래 지난 100여 년간 결성면을 자신들의 새로운 영역적 형상으로 수용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근·현대적 상징적 형상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러한 새로운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은 제도화의 과정을 거쳐 지역정체성으로 형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결성면 지역정체성 형성의 주체로서의 제도적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난 100여 년간 결성면의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을 주체적으로 형성해 온 제도적 요소 내지 제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새로운 영역적 형상으로서의 면단위 행정구역으로 변환된 1914년 이래 지난 100여 년간 결성면의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으로 구성된 지역정체성은 두 개의 근·현대적 주체, 즉 행정기관 형태의 제도적 요소로서의 결성면사무소와 교육기관 형태의 제도적 요소로서의 결성초등학교에 의해서 형성되어 온 것으로 간주된다. 본래, 지역정체성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행정기관, 교육기관, 학술단체, 언론매체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적 요소들이 관여하고 있으나, 결성면에는 제도적 요소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이외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결성면지편찬위원회가 1994년에 편찬한 「유서깊은 결성」과 「결성면지」는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을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래 지역정체성의 기록은 제도화의 주체인 학술단체, 언론매체 등이 해야 하지만, 결성면의 경우 학술단체, 언론매체 등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서의 결성면사무소가 그 역할을 대행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역정체성 형성의 주체의 하나인 신문사와 같은 언론매체가 일상적으로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제도화 기능을 발휘해야 하지만, 결성면에는 언론매체가 없으므로 행정기관으로서의 결성면사무소가 주도하여 면지를 편찬하는 것으로 언론매체에 의한 일상적 제도화 기능을 대체한 것으로 간주된다.

셋째, 결성면의 지역정체성과 관련하여 최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최근에 홍성군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른바 ‘홍주 지명되찾기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홍성군 지명이 내포하고 있는 1914년의 홍주군과 결성군의 결합적 의미에서 결성군의 의미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홍주군

역사 측면에서는 1,000여년 역사의 홍주 지명 복원이면서 100여년만의 일제 잔재 청산이지만, 결성군 역사 측면에서는 홍성군 역사에서 결성군 역사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태는 결성면 지역정체성의 기본인 군현 형태의 영역적 형상과 역사적 고토의식의 소멸을 유발할 수 있다.

2. 과제

전통적 촌락지역의 지역정체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로서 본 연구가 차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는 첫째, 결성면 주민들이 역사적 측면의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으로 구성된 지역정체성과 최근의 상징적 형상으로서의 지역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조사, 둘째, 결성면사무소와 결성초등학교가 어떻게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을 제도화해 왔는지의 심층적 조사, 셋째,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을 압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기록자료로서의 결성면지들이 지역정체성을 어떻게 대항적으로 형성하고 있는지에 관한 상세한 조사, 넷째, 1914년에 홍주군과 결성군의 행정구역이 통폐합되고 새로운 홍성군이 출범할 당시에 결성면 주민들은 새로운 영역적 형상을 어떻게 수용했는지에 관한 조사, 다섯째, 최근에 홍성군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홍주역사천년을 맞이하여 홍주지명되찾기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결성면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 여섯째,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을 지역경제발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등이 있다.

註

- 1) 현상학, 후기구조주의, 구조화이론, 신지역지리학, 인본주의지리학, 포스트모더니즘, 세계화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Cresswell(2013), Nayak and Jeffrey(2011), Aitken and Valentine(2015)의 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 2) 김일곤 등(1998)이 제시한 상징의 존재별 양식과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말, 글 [슬로건, 표어 등], 기호), 행위(일상적 행위 [신호, 몸짓, 규범적 행위 [의례, 의식, 주술]), 상상의 산물(신비적 산물 [신화, 전설, 꿈, 예술적 산물 [음악, 미술, 공간구성]), 관념(정치적 관념 [이데올로기, 준이데올로기], 비정치적 관념 [신념, 태도,

가치관), 인물(긍정적 인물 [영웅, 성인, 위인, 애국자, 부정적 인물 [악인, 적, 반역자, 침략자]), 사물(인위적 사물 [깃발, 건축물, 조형물, 도구 등], 자연적 사물 [산, 나무, 물 등]), 제도(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 [교육, 언론, 언론, 종교 등], 문화제도 [생활양식, 관습 등]), 지역(새, 동물, 나무, 꽃, 노래, 기, 휘장)

- 3) 조선시대에 결성관이라는 결성동헌이 있던 곳이다. 결성동헌은 일명 망일현(望日軒)으로 부르며, 지방수령이 국가공공사무를 다루던 읍치(邑治)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석당산 중턱에 입지해 세상을 압도하고 있었다. 결성동헌은 고려말에 결성면 금곡리 분우터에 있었는데, 1400년에 옮겼고, 1665년(현종 9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 후 여러 차례 고쳐지었다. 1982년 해체 복원되었으며, 1988년 도지정문화재 제306호 지정되었다. 결성동헌의 구조와 형태를 보면,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집인데, 지붕의 왼쪽과 오른쪽 모양이 조화되지 않은 형상이다. 결성동헌은 일제강점기에 결성면사무소로 사용되기도 했다(결성면지편찬위원회, 1994:73).
- 4) 형방청은 결성관아 소속의 순교(巡校)가 지방치안을 담당했던 곳이다. 현재 형방청의 정문 현판에는 형방문(刑房門)이라고 쓰여 있다. 형방청으로는 국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1991년 해체 복원되었고, 도지정문화재 306호이다. 일제강점기에는 경찰서로 사용되기도 했다(결성면지편찬위원회, 1994:73).
- 5) 결성객사시비는 2003년에 홍성군수가 결성관아 부근의 결성객사터에 세웠다. 결성객사시비에는 정숙공 안순(靖肅公 安純, 1371~1440년)이 짓고 문학박사 정우상이 번역한 '결성객사시(結城客舍詩)'가 쓰여 있다. 안순은 1437년(세종 19년) 충청도 대기군사 '충청도도문순진홍사'의 벼슬을 받고 이곳으로 내려와 백성을 구휼했다. 결성객사시의 원문과 번역문을 전제하면, 다음과 같다: 海島軒窓下 風帆几案前 孤城迷積雪 喬木帶寒烟 無術醫民病 何時到日邊 三峯行漸遠 霜髮自飄然 (바닷가 결성객사 창문 아래에서/ 순풍에 돛단배 책상 앞에 보이네/ 외로운 성 눈이 쌓여 길은 막혔고/ 큰 나무가지에 차가운 안개가 서렸네/ 백성의 병 고칠 의술이 없으니/ 어느때 임금님 곁으로 갈 수 있으려나/ 한성으로 가는 길은 점점 멀어지는데/ 서리같은 귀머리 절로 나부끼네)
- 6) 결성면 성곡리에 있는 만해한용운생가지는 1989년 12월 24일에 충청남도기념물 제75호로 지정되었다. 만해는 이곳에서 1879년(고종 16년)에 태어났다. 만해 한용운의 생

가치가 결성면에 있다는 것은 이곳이 한국 근대 독립운동사의 주역이 배출된 곳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성면의 주요 지역정체성 구성 요소의 하나로 간주된다. 북쪽으로 연결한 갈산면 행산리에 있는 백야 김좌진 장군의 생가지와 사당은 한국 근대 독립운동사 주역 배출지로서의 결성면의 지역정체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만해한용운생가지에 있는 '만해한용운생가지지역화기(萬海韓龍雲生家址聖域化記)'는 홍성군수 이상선(李商善)의 주관으로 1991년 3월 총21억원의 재원으로 초가삼간 생가 복원, 만해사(甘露祠) 건립 등을 수행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만해문화체험관은 만해한용운생가 옆에 있다.

- 7) 만해문화체험관 구내에는 만해어록비가 있다. 어록비에는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 후 옥중에서 집필한 옥중독립선언서인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 첫머리에서 인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결성면사무소의 구내에는 '만해한용운시비'가 세워져 있다. 시비의 앞면에는 만해의 시 '나룻배와 행인'이 새겨져 있고, 시비의 뒷면에는 '결성연혁(結城沿革)'이 적혀 있다. 앞면 시의 내용을 전제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당신은 흠뻑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이나 얕이나 /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 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 마다 낚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8) 결성초등학교개교100주년기념탑에 기재된 연혁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1911년 09월 01일 사립보광학교 설립, 1912년 12월 27일 결성공립보통학교로 개칭, 1925년 04월 01일 4년제에서 6년제로 학년 연장, 1947년 04월 01일 결성국민학교로 개칭, 1949년 09월 30일 호송국민학교로 승격·분리, 1978년 20학급 편제(재학생 최다), 1981년 03월 01일 병설유치원 개원(1학급), 1996년 03월 01일 결성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2011년 02월 18일 제97회 졸업(졸업생 총수 6,884명), 2011년 03월 01일 7학급 편성, 병설유치원 1학급 편성, 2011년 06월 11일 개교 100주년 기념식" 등이다. 교정에는 2011년 6월에 식재된 '개교일 백주년기념식'도 있다.
- 9) 「유서깊은 결성」은 책의 명칭을 책의 표지에는 「由緒깊

은 結城)으로, 책의 서지(書誌)에는 「結城面誌」(결성면지)로 이중으로 표기하고 있다. 당시 발간사는 결성면장 전하수(田夏秀)가, 축사는 홍성군수 이상선(李商善)이 각각 썼고, 편찬위원은 결성면장 전하수(위원장) 등 7명이었고, 집필위원은 홍주향토문화연구회장 배동순 등 15명이었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2012, 「고지도를 통해 본 충청지명 연구 (1)」.
- 국립중앙도서관, 2014, 「고지도를 통해 본 충청지명 연구(2)」.
- 국토지리정보원, 2012, 「한국지명유래집: 충청편」.
- 국토지리정보원, 2013, 「1:50,000 지형도: 홍성 도록」.
- 결성면지편찬위원회, 1994, 「유서깊은 결성」.
- 결성면지편찬위원회, 2015, 「결성면지」.
- 김일곤·이재하·전영권·황홍섭, 1998, 「지리학의 이해: 주 제적 접근」, 법문사.
- 두산동아, 1999a, 「두산세계대백과사전: 5권」.
- 두산동아, 1999b,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0권」.
- 두산동아, 1999c, 「두산세계대백과사전: 28권」.
- 박승규, 2013, “정체성,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노두,” *대한지리학회지*, 48(3), 453-465.
- 심승희, 1995, “역사경관과 지역정체성에 관한 연구: 전주 시 한옥보전지구의 역사유적을 사례로,” *지리교육 논집*, 33, 43-73.
- 이영민, 1999, “지역정체성 연구와 지역신문의 활용: 지리학적 연구 주제의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2), 1-14.
- 임병조, 2009, “지역정체성의 구성과 제도화: 홍성신문에 나타난 ‘內浦’ 만들기,” *대한지리학회지*, 44(1), 89-104.
- 임병조·류제현, 2007, “포스트모던 시대에 적합한 지역개념의 모색: 동일성(identity)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2(4), 582-600.
- 朝鮮總督府, 1918,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洪城·安眠島北部 圖幅」.
- 朝鮮總督府, 1925, 「大正十四年朝鮮簡易國勢調査結果標」.
- 조아라, 2009, “문화관광지의 문화정치와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의 재해석, 제도화, 재인식,” *대한지리학회지*, 44(3), 240-259.
- 최재현, 2005, “세계화 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2), 1-17.
- 홍성군, 2009, 「홍성군행정지도」.
- 홍성군, 2013, 「충남 홍성」.
- 홍성군지편찬위원회, 1993, 「홍성군지: 증보판」.
- 홍성흡, 2001, “지역활성화 운동과 지역정체성의 형성 및 분화양상: 일본 탕포원정의 핵심 활성화운동 집단의 운동전략과 역사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3(2), 55-77.
- 「大東輿地圖」.
- Aitken, S.C. and Valentine, G., eds., 2015, *Approaches to Human Geography: Philosophies, Theories, People and Practices*, Second Edition, London: SAGE.
- Cresswell, T., 2013, *Geographic Thought: A Critical Introduction*, Chichester: Wiley-Blackwell.
- Forsberg, T., 2002, The ground without foundation? Territory as a social construct, *Geopolitics*, 8(2), 2-24.
- Knight, D., 1982, Identity and territory: Geographical perspectives on nationalism and regionalism, *Annals of the AAG*, 72(4), 514-531.
- Nayak, A. and Jeffrey, A., 2011, *Geographical Thought: An Introduction to Ideas in Human Geography*, London: Pearson.
- Paasi, A., 1986,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 A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of the emergence of region and constitution of regional identity, *Fennia*, 164(1), 105-146.
- Paasi, A., 1991, Deconstructing regions: Notes on the scales of spatial life, *Environment and Planning A*, 23, 239-256.
- Paasi, A., 2003, Region and place: Regional identity in ques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7(4), 475-485.
- Raagma, G., 2002, Regional identity in regional development and planning, *European Planning Studies*, 10(1), 55-76.
- Sayer, A., 1989, The new regional geography and problems of narrative, *Environment and Planning D*, 7, 120-138.
- Scott, A.J., 2001, Capitalism, cities and the production of symbolic forms, *T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NS, 26, 11-23.

결성면사무소 홈페이지, <http://gyeolseong.hongseong.go.kr>

결성초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gses.cnees.kr>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nfm.go.kr>

문화일보 홈페이지, <http://www.munhwa.com>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ari.re.kr>

홍성군청 홈페이지, <http://www.hongseong.go.kr>

교신 : 최원희, 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
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cwh@kongju.ac.kr)

Correspondence : Wonho Choi, 32588, 56 Kongjudaehak-ro,
Kongju-si, Chungcheongnam-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cwh@kongju.ac.kr)

투 고 일: 2016년 7월 25일

심사완료일: 2016년 7월 29일

투고확정일: 2016년 7월 30일